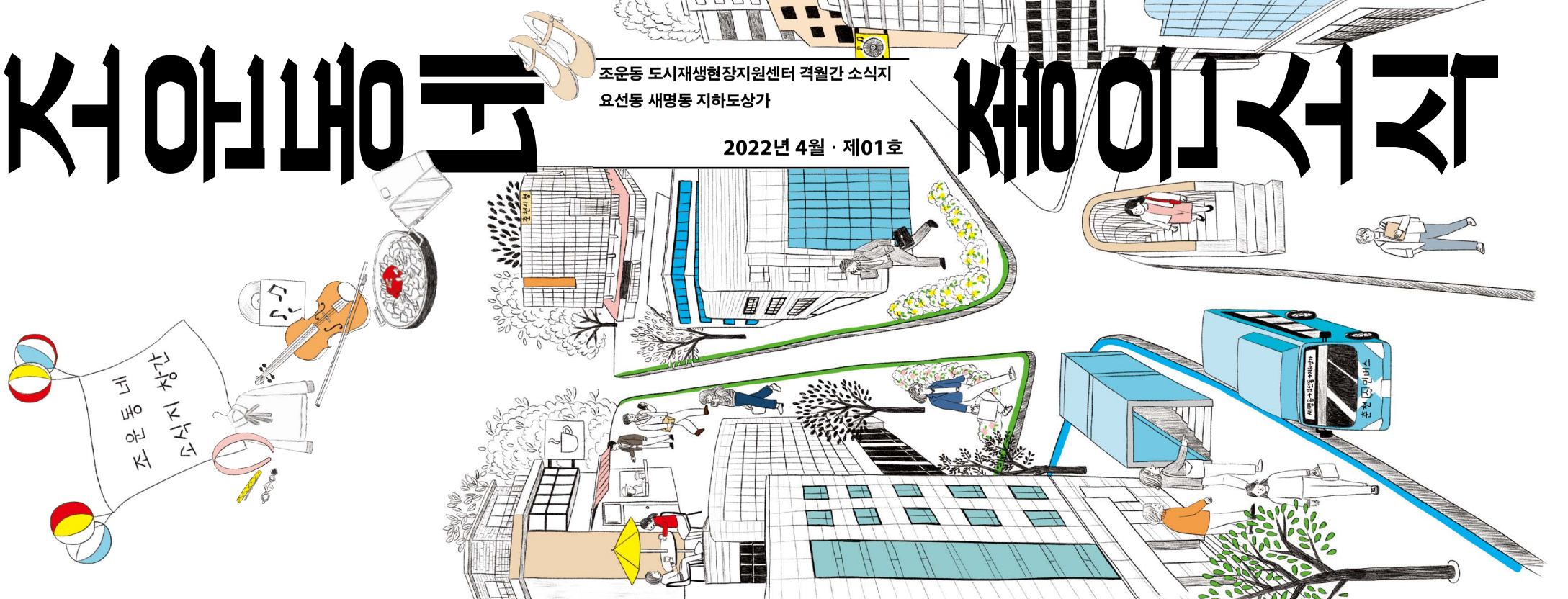
저아내로 새이서지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새명동 지하도상가

2022년 4월 · 제01호



Contents

01 조운 게시판

02 사는 사람 조운 사람
조운동네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06 同同街 마주하기
우리 동네 이야기

10 우리도 멋지게
포항 원도심을 탐구한다

12 조운人 한마디
14 조운Q&A
15 좋은 소식
16 편집후기
17 조운인별
18 그림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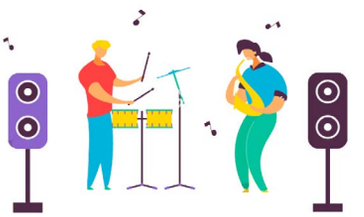
조운동네 좋은소식

2022년 4월
제01호

창간일 4월 15일
발행일 4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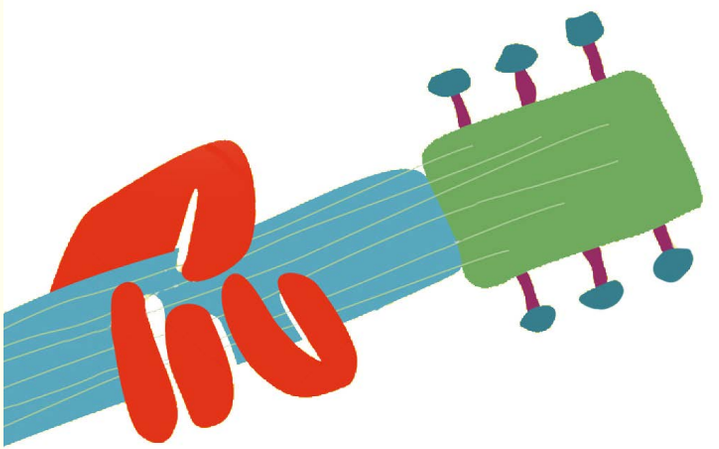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유명화
일러스트 하고고, 신진호
사진 이보영(스튜디오 록)
디자인 쿠담
제작 여름 출판사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5



조운플레잉
시즌 2

조운동네 공연배달



사업기간

2022. 4. 30(토) ~ 5. 28(토)

사업장소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권역 일대
시청광장, 요선동, 새명동, 지하도상가 거리 및 상가 일대

프로그램

버스킹 게릴라형 공연, 체험, 축제형 행사 등

2022년 조운동 주민(상인)협의체 운영위원

대표 **이숙자**(유일관)

부대표 **성기봉**(제로모바일)

부대표 **길만배**(속초식당)

사무장 **김정희**(혼다라멘)

분과장(새명동) **최신민**(㈜민엔지니어링)

분과장(요선동) **임재희**(J기타&우쿨렐레)

분과장(지하도상가) **이수희**(네이처컬렉션)

부분과장(새명동) **황송현**(명동뭉텅찌개)

부분과장(요선동) **강성복**(개성부동산)

부분과장(지하도상가) **권미영**(노엘)

조운동네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새명동 요선동 춘천 지하도상가의 〈조운동네 좋은소식〉을 아시나요?

의미와 정신이 후대에 이르도록, 이숙자



우리 동네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 소식지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소식은 물론이고 어렵고 힘든 상가와 일을 소식지에 올려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 보자는 거죠. 춘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요. 다른 지역 재생사업 소식도 전해 받아 좋은 건 우리도 적용하고, 우리가 잘한 건 또 전수해 주고요. 우리는 조운동 재생사업을 시작하는 것뿐이지요. 시작을 잘해서 뒤로 누가 계속 이어가면 좋겠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모아놓아야 후대가 이어가고 개선해 갈 테니까요. 모쪼록 〈조운동네 좋은소식〉이 우리 바람을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역할을 잘해주세요.

공감하고 협동하는 계기를, 성기봉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종이책 〈조운동네 좋은소식〉이 과연 유효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SNS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소식지를 갖다 놓고 살펴야지요. 손님이나 상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소식지로 다른 상가, 상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협동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이웃을 잘 몰라요. 서로를 알아야 정도 나누고 거래도 될 수 있는데…. 지하도상가가 춘천시의 공유재산이 되어 많이 힘듭니다. 모쪼록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로 공감하고 협동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하고, 해주려고 할 때 우리도 생각이 바뀌고 진취적으로 되죠. 그래야 여기가 발전해요.

의견과 개선 요구를 필히, 길만배



소식지는 상인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지요. 그리고 소식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소식, 우리 권역에서 개선해야 할 점 같은 정보가 담겨야 해요. 권역에서 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리고, 이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과 개선 요구가 담겨야 하고요. 세 권역의 변화되는 모습과 상인들 의견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합하고 융합하면 동네에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겠죠. 연쇄효과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상인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군요. 3개 권역의 좋은 점, 부족한 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해 상가를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김정희



〈조운동네 좋은소식〉, 정말 반가워요. 우리 협의체가 다 같이 이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으로 소통해서 여기가 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권역 분들과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조운동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고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주민이나 상가 분들이 바라는 점을 소개해 주세요. 소식지가 정보 공유와 소통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해요.



상가 홍보를 많이, 최신민

이곳 권역 대부분이 상인들이니 상인, 상가 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게 고루 신경 써서 차례로 홍보해야죠. 홍보는 아무래도 매출과 직결되는 방법이면 좋겠고, 소식지가 우리 권역 상인들 간의 소통에 필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 권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을 저해하는 것은 무관심인데, 서로의 이권과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소통하고 의견을 통합해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통은 중요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 황송현



아무래도 여기 상가 분들이 보는 건데 홍보! 홍보가 중요하고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실어야죠.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협조가 잘되지는 않아요. 상가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책임이긴 하지만. 그래서 소식지가 관심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상인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도 잘 파악되지 않는데, 소식지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우리는 정말 좋지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바람을 일으키는, 임재희

소식지는 궁금해야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일상사에 관심사를 갖고 살펴 소식지에 담아주세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읽을거리가 많은 재미있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봄이 되니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행지 정보도 주고, 상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방이나 프로그램 소식도 전해주세요. 우리 권역 안에 있는 체험 공방과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권역에 건전한 바람이 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요선동, 춘천이 힐링되는 곳으로 '딱' 인식되었으면 해요.

요선동을 한눈에 담아, 강성복



소식지가 무엇보다 상가 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지요. 요선동 역사도 설명해 주고, 이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도 이야기해 줘야겠지요? 우리한테는 주차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먼저고 다음은 요선동 상가 지도예요. 요선동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 거리에 어떤 상가가 있는지 알려주는 요선동 지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하도상가도 어느 쪽에 몇 호가 있는지, 어떤 상가가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우리도 자주 내려갈 거고 말이지요.



좋은 글 행복한 글을 가득, 이수희

지하도상가, 새명동, 요선동에서 하는 행사나 홍보해야 하는 것들을 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작업이 끝나면 손님들이 더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홍보도 소식지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지하도상가는 상인회 중심으로 1일 배송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센터가 행사들을 해주면서 지정 상가 상품권을 많이 주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지하도상가 안에서만 쓸 수 있거나 요선동, 새명동에 특화된 지정 상품권을 개발하는 등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소식지 창간을 축하하고 앞으로 좋은 글, 행복한 글이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운동 도시재생 권역의 가치를, 권미영



우리 상가를 널리 알려야지요. 요즘은 지하도상가를 안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식지를 통해 지하도상가의 변화를 알리고 지하도상가가 홍보된다면 더 좋겠고요. 그런데 소식지 배부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전하는지도 관건이에요. 〈교차로〉나 〈봄내〉처럼 배부되면 좋을 텐데, 시내 어디든 소식지를 비치해서 누가 보면 "아, 지하도상가에 이런 소식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야지요. 사람들이 "지하도상가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올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소식지 창간은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요, 소식지 발행을 계기로 우리 상가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춘천 경제·문화의 제1번지 조운동

'아침 햇살이 비추는 마을'이라는 뜻의 조운동은 법정동인 조양동과 운교동 일부를 합하여 만든 행정동이다. 조양동의 조양은 소양강의 소양과 함께 아침 햇살이라는 뜻이며, 아침은 방위로 말하면 동쪽이고 동쪽은 계절로 말하면 봄이다. 조양이 봄이니 춘천의 봄春과 의미가 같아 조양은 '봄볕'이라는 뜻도 된다.

또한 아침 햇살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인 봉황과 관련이 있으니, 봉황은 평화로운 시대에 아침볕이 비출 때 나타나는 불사조로 임금을 뜻하는 동물이다. 이러한 연유로 대통령 휘장에 봉황을 그려 넣으며,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시계에서도 봉황을 볼 수 있다.

춘천에도 임금이 머무를 수 있는 '춘천이궁'이라는 궁궐이 있었으며, 이 춘천이궁의 출입문이 조양루였다. 조양이라는 이름은 이 조양루에서 가져왔으니, 그 뜻에서 예사롭지 않은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조운동은 춘천시청 등 다양한 관공서의 배후지로 1960년대부터 금융·의료기관 등이 들어선 춘천 경제의 중심지이자 유명 다방과 극장, 상점 등이 자리 잡은 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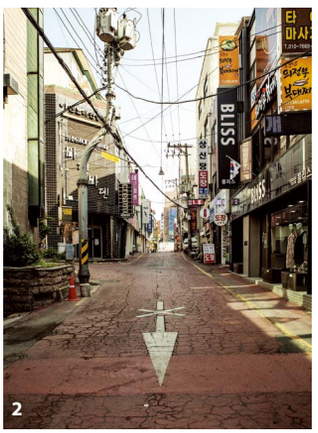
경제적 풍요 속 젊음의 낭만이 깃든

우리 동네 이야기

허준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

조운동, 요선동, 새명동은 춘천시청의 행정과 경제의 배후지다. 이러한 이유로 조운동, 요선동, 새명동은 은행, 병원, 상점들이 들어서 있을뿐더러 젊은이들에게는 청춘과 낭만을 공감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번에는 조운동, 요선동, 새명동, 지하도상가에 깃든 춘천의 정신과 역사, 문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1 조양동 전통 맛집 유일관. 소양로 봉운장과 함께 유명세를 지속하고 있다.
2 춘천 최고(最古)의 도장포 상신당(50년)과 1980년대부터 젊은이들의 낭만이 깃든 명소 바덴바덴나이트
3 시청 방향에서 명동으로 나가는 길목. 에바돈가츠(옛 왕만두)와 새명동과 오랜 세월 함께하고 있는 구두 수선가게









1 새롭게 단장한 요선동 먹자골목
2 요선동에는 표구사가 밀집해 있었지만 지금은 현대표구와 예원표구가 그 명맥을 지켜나가고 있다.
3 요선동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춘천시자원봉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4 요선동 최고 맛집 중 하나인 강릉집
5 일제강점기 이래 춘천 상권의 중심이었던 요선동 모습

길손이 주인 되는 요선동

요선동은 '신선이 내려오는 마을'이라는 뜻이며, 맞이할 요邀, 신선 선仙, 마을 동洞으로 이루어진 지명이다. 여기서 신선은 손님을 뜻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도청 자리 일대에 춘천관아(지금의 시청)가 있었는데, 관아에는 손님을 맞이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요선당이라 이름 붙였고, 이것이 요선동의 기원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요선동에는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춘천중앙감리교회 예배당이 있었다. 요선동은 일제강점기에는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유서 깊은 곳이자 조선인 시장이 열렸던 자랑스러운 마을이다.

요선동은 1960~70년대 춘천댐, 의암댐, 소양댐이 건설되며 춘천이 호반의 도시로 명성을 얻을 때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때 요선시장은 중앙시장을 능가하는 최대 서민 시장으로 활력이 넘쳐났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도 역사가 있는 이름난 필방과 음식점, 여관 등이 즐비해 춘천 경제와 문화의 요람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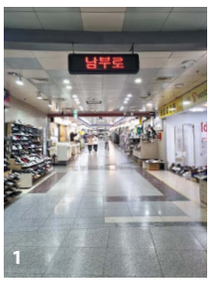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새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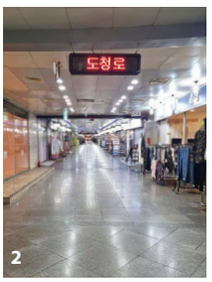
명동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도 있다. 이 명동을 더욱 새롭게 꾸민 지역이 새명동이다. 명동보다 새로우니 이름만 들어도 한달음에 가보고 싶은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접한 대학의 젊은이와 젊은 공무원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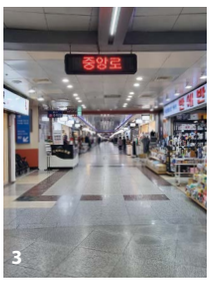
예전에는 이름난 입시학원이 있어 춘천의 교육·문화를 이끌기도 했지만 지금은 생맥줏집, 레코드가게, 디스코장, 순댓국밥집, 분식집, 카페, 닭갈비집, 옷가게 등이 들어서 있고, 육림고개 상가와 함께 젊음이 넘쳐나는 청춘과 낭만의 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재생사업이 더해져 지하도상가와 함께 젊음과 낭만이 넘쳐나는 젊은이의 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종합형 상가와 시민의 휴식처,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는 중앙로와 조양동, 요선동, 운교동을 가로지르는 춘천의 중심지로, 1999년 9월 30일 처음 개장한 이래 춘천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쇼핑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시내를 관통하는 편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사계절 날씨와 관계없이 쇼핑하고 먹거리,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는 춘천의 대표 복합 상가시설이다.







1 육림고개 방향의 남부로(지하도상가 라, 마 구역)
2 춘천시청과 연결된 도청로(지하도상가 다 구역)
3 중앙시장 방향의 중앙로(지하도상가 가, 나 구역)

조운동네(요선동, 새명동, 지하도상가)는 춘천 경제와 문화의 허브일 뿐 아니라 깊은 역사가 서린 시민 공간 1번지다. 이곳에 재생사업으로 문화의 빛깔을 선명하게 입힘으로써 춘천인의 삶의 가치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다음 호에서는 요선동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여행을 하겠습니다.



멋지게 도시를 재생한 이야기 ①

포항 원도심을 탐구한다

이예은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포항 원도심은 1990년대까지 공공 상업 문화예술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2006년 시청 이전과 외곽지역 주거지 형성 그리고 철강산업 경기 부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요인으로 빈 점포 장기 공실률이 높아지고 유휴공간이 늘어나 골목 슬럼화와 인구 쇠퇴가 가속화했지요.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는 바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어요.

꿈틀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의 국비 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으며, 해당 사업 종료 이후에는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2021년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입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회화·공예·도예·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총 30팀이 꿈틀로에 입주해 있고 청년 창업가들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함께하고 있어요.

2020년 추진한 '꿈틀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꿈틀로 출범 4년 차까지 3,000명이 넘는 시민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했으며 매년 수천 명이 꿈틀로를 방문했어요. 꿈틀로지구 내 입주자들의 2019년 총수입이 2016년과 비교해 약 2.64배 증가했대요.

또한 자생력을 키우고 더욱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꿈틀로 작가들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꿈틀로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교(포항여고, 포항고, 포항초 등)와 연계해 꿈틀로 내 작가 공방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지역 기업인 포스코 제강설비부와 연계해 문화 상생 프로그램 '꿈틀로 곁테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꿈틀로작가연합회와 지역주민·상가, 포항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발전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을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새명동, 요선동, 지하도상가 소식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300여 개의 가게를 품은 조운·소양 도시재생사업 권역.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우리 상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민혁 학생 기자


정명숙의 꽃이야기

새명동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행복합시다!"
남자 정장 브랜드 **로가디스** 253-7232 / 금강로 63-2(조양동)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건강하게 지내다 환하게 웃으며 만나요!"
신전떡볶이 255-1010 / 시청길 10번길 6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정명숙의 꽃이야기 FLOWER STORY 244-6161 / 중앙로 41-3


이순례 손만두

"5월에 콩국수, 비빔칼국수 시작해요."
이순례 손만두 242-0066 / 아침길 12-1



"주변 상인분들이 많이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CU편의점(춘천시청점) 257-3693 / 시청길 12

"같이 손잡고 이겨내요. 여태 잘 참은 거 힘내서 같이 이겨내요."
독일제빵 254-3446 / 중앙로 39


독일제빵

요선동

"함께 힘내서 더불어 더불어 삽시다!"
가정식 백반 **만미정** 254-9847 / 요선동 7-8

"요선동 소상공인을 위해 5월에 콘서트를 준비할게요. 함께 힘내요."
22LIVE 010-5367-3013 / 중앙로 38-1, 1층


터널기름집

"한번 보고 싶어요. 보면서 소주 한잔해요!"
음악이 있는 **삼익악기** 253-4220 / 중앙로 40


삼익악기

"요선동, 많이 찾아주세요!"
터널기름집 254-4169 / 서부대성로 48번길 6


런던카페

"5월 도시락 구매 시 생수 500㎖ 증정, 테라스에 오셔서 편하게 담소 나누세요."
세븐일레븐(춘천 테라스리빙점) 중앙로 32 더테라스리빙3 101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요."
수제 연유&팥 **런던카페** 254-5456 / 중앙로 30

지하도상가

"힘내고 조금만 더 참고, 기대하세요!
공사가 끝나는 5월, 대대적으로 문화행사를 할 겁니다."
지하도상가 레스토랑 **돈카돈까** 252-1510 / 다-43~46


돈카돈까

"가게에만 있지 말고 힐링하세요! 숲체험 프로그램은 언제 하나요?"
사진관 **뽀샤시** 251-2435 / 다-57

"조금 더 참고 힘내요."
옷 수선 **불개미수선** 254-8482 / 다-60

"간판(불)을 꼭 켜주세요. 켜 두어야 해요."
소품샵 **뽀아쑹** 010-5361-1145 / 다-76

소양로

"상황이 호전돼야 다음을 기약할 텐데, 조금씩 나아지겠죠."
하나미용재료 257-4111 / 가-10

"20년 됐어요. 쉼터처럼 편하게 노닐러 오세요!"
구제의류 **날개** 244-1040 / 가-13


박사타로

"젊은 분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달하게 움직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박사타로 010-6380-9158 / 가-14

"힘내세요! 센터 분들이 자주 오가셔서 궁금한 건 그때 물어요."
휴대폰 케이스 **카바** 010-9222-8666 / 가-48, 49

"베이직하고 샤랄라한 분위기의 옷이에요."
여성의류 **얀** 010-4278-3765 / 나-05

"트렌드에 맞춰 깨어 있는 우리 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의류 **친절한 보니따** 243-4988 / 나-20

"주니어 180 사이즈가 나왔어요. 여름 상품도 곧 입고됩니다."
주니어 의류 **유솔** 241-1555 / 나-21, 22

"아들이 애막골에 브런치 카페 '그루밍데이'를 오픈해요."
유아의류 **엔젤아이** 253-1703 / 나-23

"신규회원 가입 시 전 상품 5% 할인해 드려요."
30~40대 여성의류 **제이 블랑 J.BLANG** 251-4467 / 나-24, 25

"기부체납이 행해진 이후로….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여성슈즈 액세서리 **클래스 THE CLASS** 나-34


바름몰

"같이 문 열고 같이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
여성의류 **스타일빽가** 나-37, 38

"홈쇼핑보다 저렴하고 입고 만져보며 체형에 맞는 속옷을 살 수 있어요."
생활속옷 **dab** 252-2327 / 나-55-56

"진짜 주차장이 늘어나야 해요. 엘리베이터도 꼭 필요해요."
여성의류 **가영이네 / 엠마누엘** 010-9292-1525 / 나-61

"딸에게 주는 맘으로 만들어요. 제 핀으로 춘천 딸들 예뻐지세요!"
아동소품 액세서리 **예쁨뽐내** 010-2725-9897 / 나-62

"서비스를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려야 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요."
수입생활용품 **반에반** 242-5555 / 다-1, 2


저스트피자

"다 힘든 시기니까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맘스터치 242-9288 / 다-11

"우리 딸내미 취직했어요!"
손바닥피자 **저스트피자** 244-1999 / 다-16


트라안

"상가가 활성화되어 모두 웃는 얼굴로 장사했으면 좋겠네요."
광장 카페 **원리터** 251-0527 / 다-18

"공사가 잘 끝나기를 바라지요. 그때 많이 놀러 오세요!"
스타일리쉬한 **안경마트** 244-0992 / 다-19, 20

"어렵지만 다들 파이팅합시다!"
슈즈의 모든 것 **신발나라** 010-2925-4979 / 다-23

남부로 지하도상가

"'너무 감사했어요'라는 고객의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하죠."
열쇠 도장 **친절열쇠도어락** 010-6746-3579 / 라-1

"손님이 많이 내려오는 게 최고죠. 여긴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합심!"
수제화 **샤콕** 010-8834-4012 / 라-02

"지금까지 잘 버텼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어요. 파이팅!"
잡화 액세서리 **레드 아이 RED EYE** 010-4797-9940 / 라-11, 12


ELLE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손님들이 얼마나 쉽게 오시겠어요?"
속옷 **엘르 ELLE** 252-8011 / 라-13

"최대 70% 할인해요. 많이 오세요!"
의류 **행텐 HANGTEN** 251-5533 / 라-16, 17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하죠."
신발 **모델라인** 010-7930-7128 / 라-19


RED EYE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휴대폰 액세서리 **폰껍데기** 255-3290 / 라-35

"NAMU야, 좋아져서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여성의류 **103style** 255-9609 / 라-47, 48

"우리 아들 5월에 결혼해요."
화장품 **SKINFOOD** 253-6619 / 라-49

"체격 큰 분들 오세요!"
오버사이즈 의류 **POM**(폼) 010-9244-8410 / 라-62

"쇼핑 많이 나와 주세요."
신데렐라피어싱 마-9

"매일 보는 사이지만 다들 건강하게 장사합시다!"
귀금속 **티파니** 242-7123 / 마-16

"어려울수록 초심의 중요성을 느끼며 영업합니다."
성아 010-9210-5254 / 마-17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명동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했는데 결과를 봐야죠. 이 성공을 기반으로 물이 흐르고 화사한, 차 없는 거리로 획기적인 변모를 이뤄내는 게 저에게 큰 과제지요. _ㅇㅇㅇ

지하도상가로 들어오는 입구가 한 곳인데 늘려야죠. 자동차 진입로 확보, 엘리베이터 확충, 나아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지하도상가 접근성을 높여야 해요. 장애인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_ㅇㅇㅇ

요선동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인데 살다 보면 잊잖아요. 요즘 새로 들어온 사람도 많아지면서 요선동의 역사가 잊혔어요. 요선동의 역사와 가치를 되짚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상인이 아니라는 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_ㅇㅇㅇ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 시청 앞 이쪽에서 공연, 행사와 같은 이벤트를 자주 하면 좋아요. 그러려면 환경을 정비해 환한 거리가 되어야 해요. _ㅇㅇㅇ

제일 힘든 건 주차예요. 주차 때문에 맨날 싸워요.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하니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_ㅇㅇㅇ

고객이죠. 저는 고객이에요. 원체 영업이 안 되고, 코로나 여파도 있고, 온라인 쪽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오프라인에선 고객이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 50% 이상 줄었으니까 심각하죠. 지금 버티는 게 용할 정도예요. 시에서 지하도상가의 변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필요해요. 고객 유치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_ㅇㅇㅇ, ㅇㅇㅇ

주차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이 더 없는 게 주차 문제 때문이에요. 주차권을 주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쉽지 않아요. _ㅇㅇㅇ

간혹 설문조사가 필요해요. 상인들이 원하는 걸 파악해야죠. 설문조사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 결론까지 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_ㅇㅇㅇ

제일 중요한 건 활성화예요. 보다시피 사람이 너무 없어요. 상인들이 일찍 문을 닫아서 손님이 끊긴다고 하는 분도 있고, 손님이 없으니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분도 있고. 하지만 아주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언젠간 웃을 날이 있겠지 생각하는데…. _ㅇㅇㅇ

반가워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해주세요. 문미정 코디님과 우정현 코디님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조운동네 공연 배달

조운플레잉 시즌2 〈조운동네 공연배달〉이 시작됩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버스킹 게릴라형 공연, 체험, 축제형 행사입니다.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 일대인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요선동, 새명동, 지하도상가에서 진행됩니다.

그림 같은 조운동네

조운 웰컴센터 집들이 〈그림 같은 조운동네〉로 초대합니다. 5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조운 웰컴센터에서 이병도 작가, 유환석 작가, 최지관 작가의 전시와 체험, 공연이 펼쳐집니다.

조운동네 주민제안 실험실

2021년 연말 진행했던 주민 참여형 기획 워크숍 '씽킹페스타'를 기억하시나요? 요선동, 새명동, 지하도상가 상인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5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트램

춘천 구도심인 명동과 중도 레고랜드를 연결하는 트램(Tram) 설치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북적북적해질 명동을 기대해봅니다.



한영호 센터장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한영호입니다. 〈조운동네 좋은소식〉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춘천지하도상가, 새명동, 요선동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센터 코디네이터를 비롯해 많은 주민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무사히 멋진 소식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저 역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 이 소식지를 통해 센터와 주민 간의 소통과 공감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조운동네 좋은소식〉이 조운동네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지만 알차고 힘 있는 소식지로 더욱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담당코디 **이예은**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예은 코디네이터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운동네 좋은소식〉의 창간을 가장 애타게 기다린 건 저일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온 만큼 걱정도 기대도 컸는데요.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애로사항도 많았고, 계약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료 조사, 기획안 작성, 파트너 선정, 원고 집필까지 제 손길이 가득 닿은 이 소식지가 모쪼록 독자분들에게도 재미있고 또 보고 싶은 글이 되길 바라봐요. 서툰 저를 열심히 도와주신 조운동 센터 동료분들, 여름출판사 유명화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운동네 좋은소식〉은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세요.



학생 기자 **이민혁**

학교를 오가며 자주 보고 많이 봐 조운동을 다 안다고 여겼는데 상가 소식을 전하려고 요선동, 새명동, 춘천지하도상가를 일일이 찾아가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알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학생 기자로 처음 활동하게 되면서 서툰 부분이 참 많았는데 옆에서 도와주시고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호부터는 이제 조운동잘알('잘 안다'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로 더욱이 활기차고 진솔하게 조운동네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선동 새명동 지하도상가

조운동네 곳곳에 숨어 있는 스팟을 찾아라!



문화가 숨 쉬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운동네 인스타 인증샷 이벤트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미션!
사진 속 장소를 찾아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기간 2022. 5. 1(일) ~ 2022. 5. 30(화)
당첨자 발표 2022. 6. 1(수)
상품지급 2022. 6. 1(수) 이후 순차 지급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10명)

유의사항
조운동네 인스타그램(**@joundongne**) 태그 필수!
당첨 결과는 조운동네 인스타그램에 공지되며 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그림조운동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은 요선동·새명동·지하도상가 상점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춘천 원도심입니다. 〈그림조운동〉을 활용해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 **요선동 상점가**는 버스로 접근하기 좋아요. 춘천시청별관, 인성병원, 중앙시장환승센터, 춘천농협 방향의 버스가 아주 가까이 갑니다. 시청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새명동 상점가**에는 시청공영주차장, 새명동공영주차장과 보광주차장이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명동입구 방향 버스를 타면 바로 새명동으로 갑니다.
- **춘천지하도상가**를 두 곳 이상 이용하면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해요. 출입구가 은행 앞으로 나 있어 지하도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면 은행 일을 보기 편해요. 중앙시장, 명동입구 방향 버스는 모두 이곳을 경유해요. 중앙로터리 시청길 하나은행 건너편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주말에는 춘천시청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 춘천시 | 조운소양 도시재생뉴딜사업